

“사랑 김치 드시고 행복하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 자승)은 SK텔레콤(대표 하성민)과 함께하는 '2011 SK텔레콤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11월 22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유정성 목사, 대한성공회 서울 교구장 김근상 주교 등 3개 종단 대표와 SK텔레콤 하성민 대표이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배대진 목사, 부스리기사관나눔회 이경림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직접 김치를 버무렸다. 이날 담긴 김치 110톤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소외 가정 등에 전달됐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특별기고

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

얼마 전부터 소위 '21세기 아소가 선언'을 둘러싼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격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직 불교가 생동하고 있고, 불교도들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구를 위한 선언일까?” “누구에게 하는 선언일까?” 필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선언은 ‘열린 진리’ ‘열린 종교’를 강조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는가. 아니, 우리 불교가 언제 남의 종교를 부정하고, 불교만이 길ियो 진리요 구원이 라고 주장해 왔던가? 언제 우리 불교도가 교회를 부정하고 성당을 훼손하는 침략적 행위를 자행해 왔던가?

지금 우리 불교는 기진맥진해 있다. 종단 내부의 탐욕스런 권력구조와 이교도들의 전면적인 도전 앞에서 힘을 잃고 이류·삼류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다. 스님들도 기력을 잃고 재가대중들도 도처에서 기를

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종교는 다 진리다” “싸우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고 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싸울 힘도 대항할 능력도 없는 초라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주장하니, 힘이 빠지고 화가 나는 것이다. ‘아소가 선언’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많은 불교도들이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런 심리적 상황 때문일 것이다. ‘무장해제’라는 일부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언제 우리가 무장한 적이 있었던가?

이왕 이런 선언을 내려 한다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발의로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선언했어야 할 것이다. ‘아소가 선언’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 아닐까?

선언에서는 아소가 대왕이 모든 종교를 옹호하고 평등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래서 ‘아소가 선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다. 그것은 아소가 대왕이 불교의 담마로써 인도 대륙을 정신적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위와 돌기둥에 새겨진 아소가 칙령은 ‘불교’라는 전제 없이 보편적 의미의 담마(法, 善法)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담마는 실제로는 불교이다. 불교의 담마(佛法)이다. 여기에는 〈숫타니파타〉 〈앙가뭇타니까야〉 등 초기경전들이 인용되고 있다.

아소가 대왕은 불교로 개종하고 열렬히 신봉하면서, 불교 담마를 인도대륙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수많은 사리탑과 바위·돌기둥을 세워 불교 정신을 전파하고, 멀리 중동지역까지 전법사를 파송해 불교세계를 확장시켜 갔다. 그러면서 불교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종교 평화를 실현해냈다. 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역사적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종교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불교가 힘을 갖고 있어야 이 땅의 종교평화는 비로소 가능하다.

‘아소가 선언’을 아무리 외쳐 봐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다. 저들이 경청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아소가 선언’이 진실로 평화선언이 되려면, 먼저 우리 불교계의 힘부터 길러야 한다.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현장에서, 힘없는 자들이 ‘우리 평화합시다’ 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백기(白旗)를 드는 것과 다를 것이 않은가?

자유로운 경쟁, 선의(善意)를 다하는 치열한 경쟁, 이 경쟁을 통하여 힘을 기르고 세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만고불변의 ‘생존의 법칙’일 것이다. 그것은 평화 이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중들이여, 전법하러 떠나가라”고 분부하시고, 팔십 노령으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피땀 흘리며 변방으로 나아가 법을 전파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만해 스님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승리한다” 이렇게 절규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밤을 지새며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재영(청보리회 법사)

佛都 부산서 훼손 사건 연쇄 발생 ‘충격’

개운사 등 반송동 일대에서 붉은 페인트로 불상 등 훼손

부산 반송동 일대에서 사찰 내 불상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반송 2동 개운사 주지 해암 스님은 21일 새벽 4시경 경내 야미타불과 사천왕상 등 각 종 불상이 붉은 색 페인트로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잠겨 있던 대웅전의 불상을 제외하고는 30여 군대의 불상과 사찰 내부 시설들이 훼손돼 있었다. 스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해암 스님은 “붉은색 페인트로 S자를 그렸다. 훼손 사건이 이 일대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새벽 같은 지역에 위치한 지림사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이 침입해 불상을 훼손하고 도주했다. 더구나 괴한은 지림사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당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림사는 새벽에 훼손 사태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하고,

사찰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16일과 17일에도 반송동 인근 적조암과 원오사에서 훼손 사건이 발생해 계속된 사태에 불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4일 ‘부산 4개 사찰 훼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웃종교인의 훼손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상호 존중하는 종교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불교는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는 이웃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종교간 화합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또 “이번 사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이다. 한국불교를 희롱한 것이며 2000만 불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MB정부의 종교화합이 말장난에 그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남의 종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웃종교가 가져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괴한에 의해 훼손된 개운사 불상

중앙신도회, 북측과 문화재 환수 ‘협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북한을 방문해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중앙신도회는 11월 22일 개성을 방문해 조선불교도연맹을 만나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슈코칸에 있는 고려 5층 석탑과 중국 뤄순박물관에 있는 고려 범종 환수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

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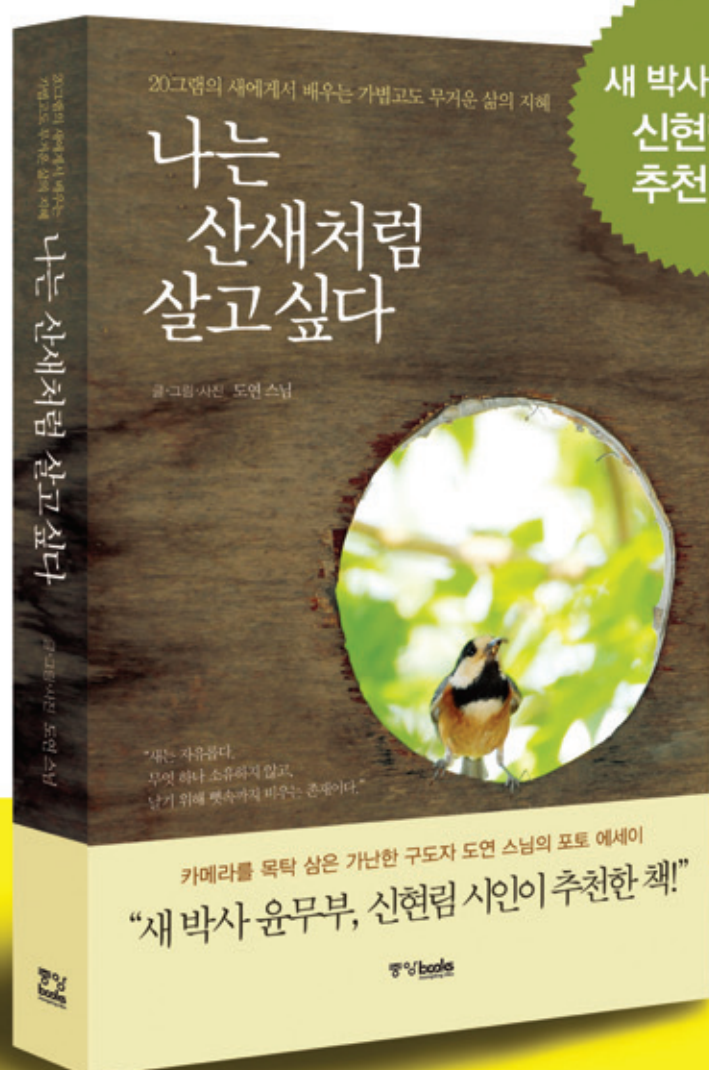
중앙신도회에서는 이상근 사무총장과 강래구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이 참석했다. 조별련에서는 리류룡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성 방문은 지난해 5·24 남북 제재조치 이후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첫 방북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박기범 기자

20그램의 새에게서 배우는 가볍고도 무거운 삶의 지혜

나는 산새처럼 살고 싶다



도연 스님 저 | 값 13,800원

일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 고달픈 나날을 보내는 이들을 위한 한 모금 맑은 샘물 같은 도연 스님의 이야기

www.joongangbooks.co.kr Tel. 1588-0950

중앙books JoongAng Books